

유아기의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 및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김도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Longitudinal Effects of Peer Play Behavior during Toddlerhood on Social Competence and Adaptation to Elementary School

Do-Hee Kim
Ph.D. Candidate in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6년 간 추적하여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과 이를 거쳐서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4차부터 9차 자료(2011~2016년)를 활용하여 남아 114명과 여아 94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별하였다. SPSS와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다중매개모형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세 시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은 만 4세와 만 5세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을 의미 있게 예측해주며 각 시점의 또래놀이행동을 거쳐서 만 6세에 관찰된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만 3세 시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은 향후 시점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과 만 6세에 관찰된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점의 적응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유아, 또래놀이행동, 학교 적응, 사회적 유능감, 한국아동패널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effect of peer play behavior (PPB) during toddlerhood on social competence (SC), followed by the effect on adaptation to elementary school.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4th to 9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etween 2011 to 2016, of which the data collected from 114 boys and 94 girls were finally analyzed. Multi-Mediator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programs. First, PPB observed at the age of three significantly predicted PPB observed at ages four and five. It significantly affected SC observed at the age of six after transitioning through PPB at each stage. Second, PPB observed at the age of three significantly impacted the degree of adaptation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e medium identified in this second finding was PPB observed after the age of three and SC observed at the age of six.

Key Words : Toddler, Peer Play Behavior, Social Competence, School Adaptation, PSKC

*Corresponding Author : Do-Hee Kim(mksbuf@naver.com)

Received July 3,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August 13,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1. 서론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와는 달리, 더 많은 또래와 관계를 맺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고 규율이 엄격해진 학교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부모님과 교사의 보호와 지도에 따르기보다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도 크게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와 학교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은 점차 학교에 있는 것이 즐겁지 않고, 학습에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정서·행동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며 그러한 상황에 오랫동안 방치될 때에는 학습 부진, 규칙 위반, 왕따, 폭력, 비행과 같은 발달상의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된다[1]. 따라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고 적응해나가는 저학년 시기에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학교의 규칙과 교사의 지시를 따르며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갖추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적절한 학교 적응의 요소인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숙제와 공부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의 네 가지 적응 영역[3]을 중심으로 학교 적응 수준을 예측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조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이 건강하고 주의력이 높으며 부모가 초혼이고 애정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을 때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그리고 부부갈등 수준이 낮고, 취학 전 모-자녀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향후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또한, 아동의 학업 수행 능력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교사의 효능감과 직무 만족도가 아동의 학교 적응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근무 조건과 아동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6]. 한편, 유아기에 보이는 의사소통과 학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향후 저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7]. 이러한 결과는 이른 시기부터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최상의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건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이 학교라는 환경에서 경

험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건강하게 발달해나갈수록 돕는 개인의 자원을 조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초점을 두고 학교 적응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능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적응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8]. 여기에는 문제해결력, 갈등 처리 기술, 의사소통, 공감, 자부심을 비롯한 여러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사회적 상황이나 연령 및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기준과 가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념과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8]. 본 연구에서는 유아동기에 중요한 사회적 유능감 요소를 밝힌 Gresham과 Elliott[9]의 제안을 바탕으로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장성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또래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협력성은 교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또래와 도움을 주고 받는 행동을 의미하며, 자기통제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거나 또래의 압력과 놀림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9].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자아와 사회·정서적 발달과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해온 것을 볼 수 있다[10,11].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 적응 수준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11]에서는 유아기에 학습 준비도와 자기 통제 및 협력성이 높을수록 향후 높은 학교 적응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령 전 유아기 때부터 학습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와 의지를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능감을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10]에서는 유아기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적응 수준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는 활동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들은 유아기에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이 장기간에 걸쳐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 유능감은 부모나 교사, 또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특징이 있다[12]. 특히, 유아기에는 또래와 놀이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만들고 지키기, 다른 친구를 따르거나 주도하기, 의견을 전달하거나 협상하기, 장난감을 나누어

노는 것을 비롯한 여러 행동들을 통해 사회적인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긍정적 놀이 경험은 사회적 유능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13].

일반적으로 놀이는 아이들이 유희를 즐기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정도로 여겨졌으나 놀이가 학문의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유아·아동기 발달에서 놀이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놀이는 창의력, 자발성, 탄력성, 정서 지능, 유머와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계발하도록 돕고, 지적이고 신체적인 발달을 촉진하며 향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심리적 건강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15]. 이러한 결과들은 어릴 때 잘 노는 아이들이 긍정적인 특성을 계발하여 향후에 보다 적응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바람직한 성장을 이끄는 놀이의 개념을 검토하여 잘 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놀이성이란 즐거움과 만족, 오락을 위해 놀이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는 한편 개인의 안정적인 성격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제안되며 발달단계에 따라 상호작용, 농담, 장난, 게임, 취미를 통해 드러난다고 하였다[16]. 놀이를 연구한 주요 학자 중 한 명인 Lieberman[17]은 놀이의 요소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의 다섯 가지 특징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특징이 통합되면서 놀이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후에 Rubin, Fein과 Vandenberg[18]는 내적으로 동기화돼서 나오는 것, 자유롭게 선택된 것, 즐거움을 주는 것, 가장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이 융통성이 있는 것,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는 것의 다섯 가지 요소를 놀이의 특성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놀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 놀이를 계속하기 위해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이와 관련하여 Fantuzzo 등[20]은 유아의 놀이 과정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친사회적이고 순조롭게 놀이를 이어가는 ‘긍정적 상호작용’,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놀이를 해치는 ‘방해’, 위축되고 또래로부터 무시나 거부를 당하여 놀이하지 못하는 ‘단절’의 세 가지 놀이 행동 경향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즉, 놀이성의 개념은 놀이와 관련된 태도이자 성향을 의미하며 또래놀이행동은 실제 관찰되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긍정적인 상호관계 안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행동

을 또래놀이행동으로 정의하며 교사로부터 관찰된 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 놀이 행동이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통 놀이, 협동 놀이, 인지 놀이, 자유 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21-24]. 그리고 놀이의 질적인 측면을 검토한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하는 유아일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고, 또래와의 관계도 원만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25]. 그리고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기질보다 놀이성이 사회적 유능감을 잘 예측해준다고 보고하였다[26].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놀이 행동이 사회적 유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유아기 사회적 유능감이 향후 학교 적응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이고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보였던 유아는 향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또래 활동이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27,28].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3년 뒤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 수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27]에서는 유아기 긍정적 놀이행동이 높은 학업 수행 적응, 또래 적응, 교사 적응,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예측해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1년 뒤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28]에서는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요약하면, 유아기에 보이는 또래와의 놀이 행동이 친사회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향후 학교에 적응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로는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학교 적응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알기 어려워 또래놀이행동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잠재적인 기제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주는 못한 실정이다. 아울러 또래놀이행동의 중단적인 변화를 파악한 연구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사회적 유능감이나 또래놀이행동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중단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1년 정도로 기간이 짧아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다[10, 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초등

학교 2학년에 재학하기까지 6년간 추적하여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놀이 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을 거쳐서 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향후 학교 적응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변화를 추적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만 3세 유아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만 6세 시점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만 3세 유아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만 6세 시점의 사회적 유능감을 거쳐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점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29]의 4차부터 9차 시점에 수집된 자료(2011년~2016년)를 사용하여 만 3세 연령의 유아가 만 8세 즉,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기까지 성장하는 동안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에서 연간 분만 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2,150명의 신생아 가구로부터 표본이 추출되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29]. PSKC 자료의 전체 표본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변인에 결측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여 20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14명(54.8%)이고, 여아가 94명(45.2%)이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때 유아교육 기관 또는 보육 기관에서 보이는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담당 교사의 관찰을 중심으로 3년간 추적 관찰을 실시하고, 4년째 되는 해의 담당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감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기와 2학년 시기의 담임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학교 적응 수준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년 차 또래놀이행동이 2년 차와 3년 차에 보이는 또래놀이행동으로 이어져 4년 차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학령기 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년 차 또래놀이행동이 2년 차와 3년 차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 수준을 거쳐 2학년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또래놀이행동

Fantuzzo 등[20]이 개발하고 최혜영과 신혜영[25]이 타당화한 또래놀이행동 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칙도는 친사회적이고 놀이를 원만하게 이어가는 특성을 반영한 ‘놀이 상호작용’ 행동과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놀이를 방해하는 ‘놀이 방해’ 행동, 위축되어 있거나 또래에게 무시당하는 ‘놀이 단절’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 요인을 측정하는 9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4점 리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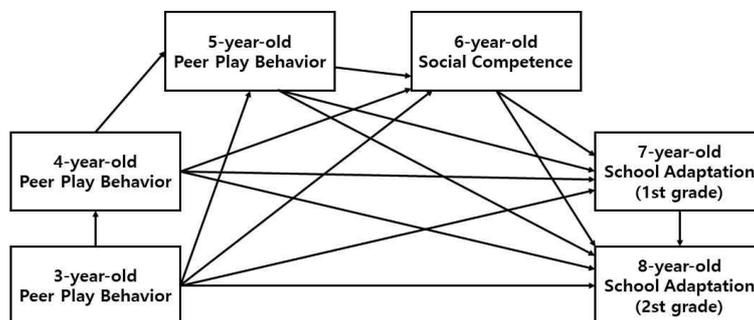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a)는 만 3세 자료에서 .74, 만 4세 자료에서 .76, 만 5세 자료에서 .72이다.

2.3.2 사회적 유능감

Gresham과 Elliott[9]이 개발하고 서미옥[30]이 타당화한 교사 평정용 유아기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SSRS)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주장성과 협력성, 자기통제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의 3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3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a)는 .93이다.

2.3.3 학교 적응

지성애와 정대현[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교 적응 척도(School Adjustment Inventory: SAI)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해진 일과나 질서에 적응하는 '학교생활 적응', 과제와 준비물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수업과 모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업 수행 적응',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또래 적응', 교사를 어려워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거나 인사를 잘하는 것과 같은 '교사 적응'의 네 가지 요인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3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a)는 1학년 학교 적응이 .97, 2학년 학교 적응이 .97이다.

2.4 자료 분석

IBM SPSS Statistics v20과 PROCESS macro v3.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매개모형 분석(model 6)을 실시하였다[31]. 이는 부트스트랩을 통해 각 변인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산출함으로써 변인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부트스트랩 사례 수는 5,000으로 설정하였다.

직접 효과(c')는 매개 변인에 의한 간접 효과를 제외하

고,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정도 ($X \rightarrow Y$)를 나타내며 이는 1년 차 또래놀이행동(X)이 사회적 유능감(Y) 혹은 2학년 학교 적응(Y)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31]. 간접 효과($a_i \times b_i$)는 독립 변인이 매개 변인을 거쳐서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X \rightarrow M \rightarrow Y$) 이는 1년 차 또래놀이행동이 다른 매개 변인에 미치는 영향($X \rightarrow M: a_i$)과 매개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M \rightarrow Y: b_i$)을 곱하여 추정된다[31]. 아울러 각 경로는 추정된 경로 계수의 신뢰구간 95%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31].

3. 연구 결과

3.1 연구 변인의 일반적 특성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량과 변인 간 상관 계수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평균을 살펴보면, 또래놀이행동의 경우에는 1점부터 4점 범위 안에서 만 3세 3.05점, 만 4세 3.15점, 만 5세 3.10점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유능감의 경우에는 1점부터 3점 범위 안에서 2.54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적응의 경우에는 1점부터 5점 범위 안에서 1학년 3.98점, 2학년 3.99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정된 것을 알 수 있겠다. 또한,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절댓값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5	6
1						
2	.23**					
3	.31**	.32**				
4	.16*	.31**	.31**			
5	.22**	.22**	.30**	.45**		
6	.11	.26**	.27**	.41**	.55**	
M	3.05	3.15	3.10	2.54	3.98	3.99
SD	.40	.37	.38	.36	.71	.66
Sk	-.47	-.46	-.42	-.77	-.69	-.64
Ku	.38	.58	.98	-.19	-.01	.15

Note: 1. 3-year-old Peer Play Behavior(PPB),
 2. 4-year-old PPB, 3. 5-year-old PPB
 4. 6-year-old Social Competence(SC)
 5. 7-year-old School Adaptation(SA-1st grade),
 6. 8-year-old School Adaptation(SA-2st grade),
 ** $p < .01$ * $p < .05$

다음으로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만 3세 또래놀이행동

은 만 4세, 5세, 6세 또래놀이행동, 만 6세 사회적 유능감, 1학년 학교 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학년 학교 적응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 4세 또래놀이행동과 만 5세 또래놀이행동, 만 6세 사회적 유능감, 1학년과 2학년 학교 적응 간에는 모두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다중매개모형 분석 결과

3.2.1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또래놀이행동의 영향

만 3세 유아가 보이는 또래놀이행동이 향후 3년 뒤 사회적 유능감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만 4세와 만 5세 또래놀이행동을 매개 변인으로 투입한 다중매개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만 3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은 1년 뒤의 또래놀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23, p<.01$), 설명력이 5%로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 또래놀이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이후 시기에 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발달적 관점에서 또래놀이행동을 변화시키는 여러 변인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여겨진다. 아울러 만 3세($\beta=.24, p<.001$)와 만 4세($\beta=.27, p<.001$) 시기의 또래놀이행동은 만 5세 또래놀이행동을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6%로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The Effect of peer play behavior on social competence

	4-y.o. PPB			5-y.o. PPB			6-y.o. SC		
	B	SE	β	B	SE	β	B	SE	β
3-y.o. PPB	.21	.06	.23**	.23	.06	.24***	.04	.06	.04
4-y.o. PPB				.27	.07	.27***	.22	.07	.23**
5-y.o. PPB							.21	.07	.23**
	$F(1, 206)=11.05***$ $R=.23, R^2=.05$			$F(1, 205)=19.24***$ $R=.40, R^2=.16$			$F(1, 204)=11.77***$ $R=.38, R^2=.15$		

Note: y.o. is an abbreviation for year-old.
*** $p<.001$ ** $p<.01$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시기에 보였던 또래놀이행동 특성이 만 4세 시기에 보였던 특성과 별개로 지속하여 만 5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만 3세 시기에 이어서 만 4세에도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특성을 보이는 유아가 1년 뒤인 만 5세 때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 수준

을 보다 잘 예측해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만 3세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은 만 6세 때 사회적 유능감을 예측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04, p>.05$) 만 4세($\beta=.23, p<.01$)와 만 5세($\beta=.23, p<.01$) 때 보였던 또래놀이행동 특성이 만 6세에 사회적 유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와 만 5세 때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만 6세 때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특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 4세와 만 5세에 보인 또래놀이행동이 만 3세에 보였던 또래놀이행동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된다는 점에서 전체 측정시점을 고려한 간접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만 3세 또래놀이행동이 만 4세, 만 5세, 만 6세 때 평정된 또래놀이행동을 거쳐서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직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만 3세 때 또래놀이행동이 만 6세 때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95% 신뢰구간 내 추정된 하한한계(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LLCI)와 상한한계(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범위 안에 0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만 3세 때 또래놀이행동이 만 4세와 만 5세 때 또래놀이행동을 각기 거쳐서 만 6세 때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만 4세와 만 5세 때 또래놀이행동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만 6세 때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추정된 하한한계와 상한한계 내에는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때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향후 2년 간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만 6세 때 사회적 유능감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3-year-old peer play behavior on 6-year-old social competence

Path	B	SE	CI	
			LL	UL
Direct Effect				
3-y.o. PPB → 6-y.o. SC	.04	.06	-.08	.16
Indirect Effect				
3-y.o. PPB → 4-y.o. PPB → 6-y.o. SC	.05	.02	.01	.10
3-y.o. PPB → 5-y.o. PPB → 6-y.o. SC	.05	.02	.01	.10
3-y.o. PPB → 4-y.o. PPB → 5-y.o. PPB → 6-y.o. SC	.01	.01	.003	.03

3.2.2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저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학년 때 학교 적응 수준은 만 5세 또래놀이행동($\beta = .14, p < .05$)과 만 6세 사회적 유능감($\beta = .38, p < .001$)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두 변인은 적응 수준의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학년 때 학교 적응 수준은 만 6세 사회적 유능감($\beta = .17, p < .05$)과 1학년 학교 적응($\beta = .23, p < .001$)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두 변인은 적응 수준의 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ffects of peer play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on school adaptation

	7-y.o. SA			8-y.o. SA		
	B	SE	β	B	SE	β
3-y.o. PPB	.19	.51	.11	-.10	.10	-.06
4-y.o. PPB	.07	.12	.04	.18	.11	.10
5-y.o. PPB	.26	.13	.14*	.13	.11	.08
6-y.o. SC	.76	.13	.38***	.31	.12	.17*
7-y.o. SA				.40	.06	.44***
	F(4, 203)=16.63***, R=.50, R2=.25			F(5, 202)=21.72***, R=.59, R2=.35		

*** $p < .001$ * $p < .05$

이는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초등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2학년 시점의 적응 수준이 1학년 적응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만 3세 또래놀이행동이 만 6세 사회적 유능감을 거쳐서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중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만 3세 유아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2학년 시점의 학교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추정치에는 0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어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 4세와 5세 또래놀이행동, 사회적 유능감,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2학년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추정된 하한한계와 상한한계 내에는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경로 중에서도 만 4세 또는 만 5세 시점에서 관찰된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기 또래놀이행동만으로는 학령기 학교 적응

수준을 예측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만 3세 유아기 때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향후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6년 뒤의 초등학교 적응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해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5.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3-year-old peer play behavior on school adaptation

Path	B	SE	CI	
			LL	UL
Direct Effect				
3-y.o. PPB → 8-y.o. SA	-.10	.10	-.30	.10
Indirect Effect				
3-y.o. PPB → 4-y.o. PPB → 8-y.o. SA	.04	.03	-.01	.09
3-y.o. PPB → 5-y.o. PPB → 8-y.o. SA	.03	.03	-.02	.10
3-y.o. PPB → 6-y.o. SC → 8-y.o. SA	.01	.02	-.02	.06
3-y.o. PPB → 7-y.o. SA → 8-y.o. SA	.08	.05	-.02	.18
3-y.o. PPB → 4-y.o. PPB → 5-y.o. PPB → 8-y.o. SA	.01	.01	-.004	.03
3-y.o. PPB → 4-y.o. PPB → 6-y.o. SC → 8-y.o. SA	.01	.01	.002	.04
3-y.o. PPB → 4-y.o. PPB → 7-y.o. SA → 8-y.o. SA	.01	.01	-.02	.04
3-y.o. PPB → 5-y.o. PPB → 6-y.o. SC → 8-y.o. SA	.02	.01	.002	.04
3-y.o. PPB → 5-y.o. PPB → 7-y.o. SA → 8-y.o. SA	.02	.02	-.001	.06
3-y.o. PPB → 6-y.o. SC → 7-y.o. SA → 8-y.o. SA	.01	.01	-.02	.05
3-y.o. PPB → 4-y.o. PPB → 5-y.o. PPB → 6-y.o. SC → 8-y.o. SA	.00	.00	.001	.01
3-y.o. PPB → 4-y.o. PPB → 5-y.o. PPB → 7-y.o. SA → 8-y.o. SA	.01	.00	-.00	.02
3-y.o. PPB → 4-y.o. PPB → 6-y.o. SC → 7-y.o. SA → 8-y.o. SA	.01	.01	.003	.03
3-y.o. PPB → 5-y.o. PPB → 6-y.o. SC → 7-y.o. SA → 8-y.o. SA	.02	.01	.004	.03
3-y.o. PPB → 4-y.o. PPB → 5-y.o. PPB → 6-y.o. SC → 7-y.o. SA → 8-y.o. SA	.00	.00	.001	.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 간의 종단적인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아동기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만 3세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긍정적인

수록 향후에도 또래놀이행동이 긍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만 3세부터 5세 사이에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인 만 6세에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1-24]를 지지하며 측정 시점을 더 어린 시기로 확장했을 때에도 장기적인 영향이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결과는 만 3세의 어린 시기에도 놀이 행동을 유의하게 관찰하고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향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또래놀이행동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중재하는 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동의 적응을 높이도록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유아기 놀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놀이 시간, 공간, 도구, 친구를 유아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과 달리, 행동적으로는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그리고 부모와의 놀이에 대한 유아의 지각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놀이하는 것을 격려하고 함께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부모뿐만 아니라 장난기를 보이면 귀찮아하고 화를 내면서 놀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모와 공부를 강조하면서 학습을 다 마친 뒤에 놀이를 하도록 허용하는 부모를 떠올리는 유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3]. 이러한 결과로 놀이가 학습의 도구 이상으로 아동에게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점을 부모가 이해하도록 돕고, 놀이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33]. 이러한 결과들은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기 또래 놀이가 학습의 도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겠다.

한편,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나 공공성이 상실된 유아 교육 시스템으로 인하여 담임교사가 부모와 협력하여 아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아이에게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34,35]. 아동의 정신 건강과 부적응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기관을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담임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저학년 학교 적

응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만 3세 유아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이후 만 4세와 5세 시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과 만 6세에 관찰된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거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적응 수준을 의미 있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7-28]와 유아기 사회적 유능감이 초등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0-11]를 지지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과거 시점의 또래놀이행동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시점에서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적응은 2학년 시기의 적응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적응 양상을 살펴보고,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의 탄력성을 보여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주장성과 자기 통제, 협력성을 높이는 교육과 중재가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고, 학습태도와 교사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임상적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낮은 사회적 유능감으로부터 기인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부적응 문제는 유아기부터 이어져 온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 문제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상호작용과 부부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5],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도록 하는 치료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어울려 놀도록 권유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지도하며, 시범과 교육을 통하여 다른 친구들의 기분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될 수 있겠다.

그리고 교사 혹은 상담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음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는 것, 순서와 규칙을 지키는 것,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것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개선하는 작업은 협력적인 태도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 적절한 대응 행동을 취하는 것, 타인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표적으로 하는 중재는 자기통제 행동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을 소개하고, 또래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거나 무엇인가를 함께 하자고 권유하며 다른 아이들이 노는 상황에 들어가 어울릴 수 있는 주도적인 태도를 격려하는 것도 잠재적으로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 적응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결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에 관찰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이 향후에도 지속하여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또래놀이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거쳐 학교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른 시기부터 보이는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이 향후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되며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는 것이 학령기 부적응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또래놀이행동을 예측해주는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역할을 조사하고,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향후 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인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학교 적응 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나가야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수집이 완료된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은 만 6세 이전의 사회적 유능감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래놀이행동의 영향이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체 변인을 반복하여 측정된 자료를 활용해 잠재성장모형이나 자기지연회귀모형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측정 시점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신경발달장애가 있거나 정서·행동적인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또래놀이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유아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수한 요구가 있는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1] K. S. Sutherland, M. A. Conroy, J. Algina, C. Ladwig, G. Jessee & M. Gyure. (2018). Reducing Child Problem

Behaviors and Improving Teacher-Child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BEST in CLA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2, 31-43.
DOI: 10.1016/j.ecresq.2017.08.001

[2] P. Hanke, J. Backhaus, A. Bogatz & M. Dogan. (2017). The Transition to Primary School As A Challenge for Parents. In Dockett, S., Griebel, W., Perry, B. (Eds.), *Families and Transition to School* (pp. 225-242). Cham: Springer.
DOI: 10.1007/978-3-319-58329-7_15

[3] S. A. Chi & D. H. Jung. (2006). Validation of School Adjustment Inventory for Fir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1), 1-15.

[4] K. O. Lee & M. R. Lee. (2013). Effects of Person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on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3(1), 13-28.

[5] W. H. Jang. (2020). The Longitudinal Effect of Maternal Perception about Marital Conflic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on Second-Graders' School Adjustment: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 25-51.
DOI: 10.22251/jlcci.2020.20.1.25

[6] J. M. Kim & S. Y. Hong. (2019).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6), 699-719.
DOI: 10.22251/jlcci.2019.19.6.699

[7] Y. A. Jung & S. J. Kim. (2019). School Readiness Profiles on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8), 875-895.
DOI: 10.22251/jlcci.2019.19.18.875

[8] P. Orpinas. (2010). Social Competence. In Weiner, I. B. & Craighead, W. E. (Eds.).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pp. 1623-1625). NJ: Wiley.

[9] F. M. Gresham & S. N. Elliott.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10] K. W. Kim. (2020). The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on Child Happiness in Transitional Period: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Adaptat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4), 711-730.
DOI: 10.24159/joec.2020.26.4.711

[11] H. H. Jeon, S. H. Kim & S. H. Hong. (2020). Trajectories in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Their Determinants: Using Growth Mixture Models. *Survey Research*, 21(3), 113-140.
DOI: 10.20997/SR.21.3.5

[12] S. T. Williams, L. L. Ontai & A. M. Mastergeorge. (2007). Reformulating Infant and Toddler Social

- Competence with Pe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0(2), 353–365.
DOI: 10.1016/j.infbeh.2006.10.008
- [13] K. R. Ginsburg.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Pediatrics*, 119(1), 182–191.
DOI: 10.1542/peds.2006–2697
- [14] J. N. Lieberman. (2014).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Y: Academic Press.
- [15] M. Van Vleet & B. C. Feeney. (2015). Play Behavior and Playfulness in Adulthood.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9(11), 630–643.
DOI: 10.1111/spc3.12205
- [16] M. S. Kim, G. S. Kim & C. H. Park. (2012).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Children's Playfulness Rating Scal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2), 69–89.
DOI: 10.5723/KJCS.2012.33.2.69
- [17] J. N. Lieberma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2), 219–224.
DOI: 10.1080/00221325.1965.10533661
- [18] K. H. Rubin, G. Fein & B. Vandenberg. (1983). Play. In Mussen, P.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693–774). NY: Wiley.
- [19] M. Y. Sung. (2016). A Comparison of Effects of Playfulness, Emotional Control, Emotional Instability on Young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2(1), 37–55.
DOI: 10.14698/jkce.2016.12.037
- [20] J. Fantuzzo, B. Sutton-Smith, K. C. Coolahan, P. H. Manz, S. Canning & D. Debnam.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DOI: 10.1016/0885-2006(95)90028-4
- [21] K. S. Kim & Y. S. Kang. (2016). The Effects of Cooperative Play in Forest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1(1), 209–239.
DOI: 10.20437/KOAECE21-1-09
- [22] S. H. Kim & S. A. Chi. (2015).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Social Competence Program Based on Cognitive Play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9(2), 29–54.
- [23] B. N. Choi & I. O. Jeon. (2018). The Effects of Traditional Play Activities Using Seasonal Customs on Children's National Identity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5(2), 87–115.
DOI: 10.22155/JFECE.25.2.87.115
- [24] S. K. Choi, J. Y. Seok & I. J. Park. (2013). An Effect of Free Choice Activity in Forest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8(2), 181–198.
- [25] H. Y. Choi & H. Y. Shin. (2008). Validation of 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for Korea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3), 303–318.
- [26] E. I. Lee, K. S. Choi & H. G. Baek. (2019).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Sex Distinction, Temperaments and Playfulness on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12(4), 215–230.
- [27] H. I. You & H. Y. Kim. (2020). Effects of Early Childhood Play Behavior and Academic Ability on Elementary School Adapt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5), 269–287.
DOI: 10.22251/jlcci.2020.20.5.269
- [28] J. Y. Lee & S. H. Lee. (2019). Effect of Individual Variables, Children's Peer Interactio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3(3), 171–199.
DOI: 10.22590/ecee.2019.23.3.171
- [29] E. S. Kim, Y. J. Bae, S. I. Cho, Y. J. Lee, S. Y. Song, J. B. Lim, E. Y. Park, S. K. Kim & E. J. Kim. (2016)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6*.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30] M. O. Suh. (2004). A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K-SSRS: Teacher and Parent Form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2), 223–242.
- [31] A. 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The Guilford Press.
- [32] K. S. Won & S. E. Hyun. (2017). The Study on Parents' Perceptions of and Implementation of Children's Right to Play.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3(1), 143–166.
DOI: 10.14698/jkce.2017.13.01.143
- [33] K. C. Kim, Y. J. Han & I. A. Kim. (2020). The Images of Play Beliefs of Parents Expressed Through Young Children's Drawing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5(3), 301–331.
DOI: 10.20437/KOAECE25-3-13
- [34] S. H. Na & H. J. Yi. (2012). In child-care Centers, Teacher's Go Through the Process of Experiencing Child Caring, Human Relationship, Difficulties and Solution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1), 69–94.
- [35] S. J. Kim & H. J. Mee. (2019). Rethinking Publicness of Care amid The Kindergarten Corruption Scandal:

Beyond The Transparency Issue of Accounting. *Issues in Feminism*, 19(1), 209-245.
DOI: 10.21287/iif.2019.4.19.1.209

김 도 희(Do-Hee Kim)

[초록]



- 2021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상담심리 전공) 박사수료
- 관심분야 : 미술심리재활, 상담심리
- E-Mail : mksbuf@naver.com